

양돈인으로서의 시민의식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우리는 흔히 사람이 사는 데는 공기와 물이 꼭 필요한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고마움을 알지 못한다는 비유를 많이 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사회를 떠나서 혼자 살 수는 없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언어, 교육, 도구, 의식주 문제 등 모든 것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그 사회로부터 신체적으로 떠나거나 몸은 있지만 마음이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회에 대한 배은망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사회가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그 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혼자서 농장에서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양돈농가들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예를 보면 협회, 조합, 아니면 계열주체에 소속되어 있지 혼자 고립된 농가는 상업농으로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얼마 전 태강, 부광 등 생산된 돼지를 상품화 해서 국내시장 또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거액의 부도로 양돈농가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

다. 혼자서 열심히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었다.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중에는 연간 회비 10여만원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도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으며 양돈을 한다. 기존 회비를 내는 농가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인가 내놓아야 한다.

공동방역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만의 구제역에서 보아서도 알지만, 일본의 돈콜레라 청정화 선포를 앞두고 우리도 시급하게 되었다.

나 혼자 방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잘 해야 한다.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니 모든 돼지에게 백신을 해야 한다. 유대인 랍비들이 만들어낸 우화를 소개한다.

어느날 우연히 사람들이 보트를 함께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송곳을 끄집어내어 바닥에 구멍을 뚫기 시작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놀라 '이 어리석은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요' 하고 그에게 호통을 쳤다.

그는 '내 자리 밑에 구멍을 내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요'라고 대꾸했다.

대만의 구제역도 일부 물지각한 사람의 밀수로부터 전염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대만 양돈업이라는 배는 침몰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오제스키 질병도 종돈의 수입에서 시작되었고, 돼지의 판매로 확산되었다. 감염된 돼지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내 돼지 내가 파는데 무슨 상관이요'한다면 한 배를 탄 모두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내 농장 돈콜레라 백신을 안 해서 병 걸리면 내 농장 걸리는데 웬 참견이요'한다면 배에 구멍을 뚫는 행위와 같다. 휴약기간을 안 지킨다면 양돈산업에 구멍을 뚫는 것이나 같다.

우리 민족의 결점으로 줄서기 못하는 것과 한탕주의를 꼽는다.

성질이 너무 급해서 그 렇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직업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짧은 인생 한탕해서 사치, 향락에 빠져보고 싶은 유혹때문이다.

"노세 노세 짧어 노세 늙어 병들면 못노나니"
는 짧은 인생을 한탕하는 노래이다. 최근 위싱턴

에서 UP, AFP통신에 의하면 세포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가 발견됨으로써 노화의 수수께기증 하나가 풀렸다고 한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 있는 브라운대학의 존 세디비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P21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이

유전자를 제거하면 수명이 연장된다고 한다.

현재 70세인 평균 수명이 140~210살로 될 날이 머지 않았다.

너무 조급히 생각할 것도 미리부터 노후대책을 세울 것도 없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양돈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100세까지 양돈을 하다가 그 후에 노후 대책을 세워도 40년간은 지루하게 보내야 한다.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양돈산업을 위해서 돈콜레라 백신도 철저히 하고, 휴약기간도 지키고, 협회에 참여하여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즐거움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

양돈업계에 혼자서 열심히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는 이들에게 결국은 그들도 함께 침몰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